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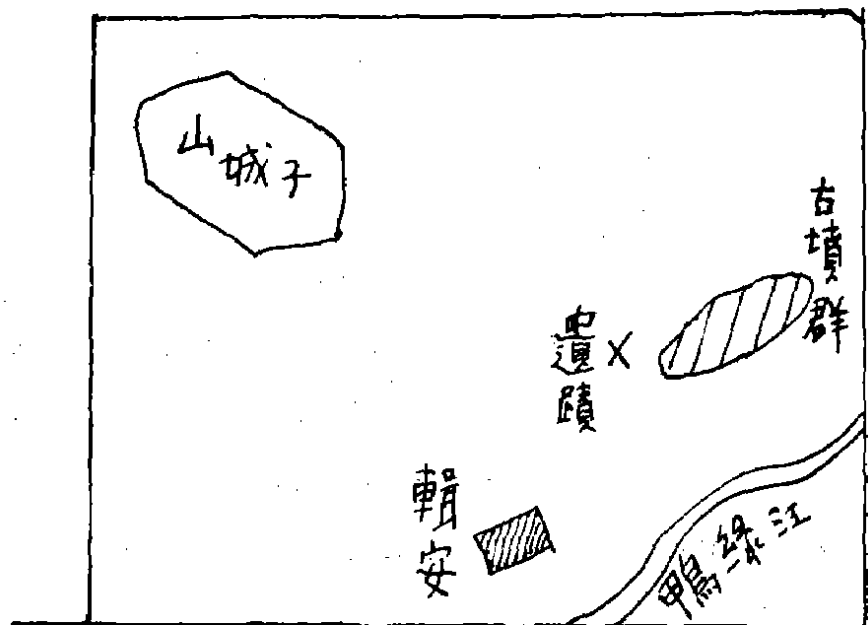
韓國考古學의 新資料 一二

金 元 龍

이 小文은 지난 9月初 香港大學圖書館에서 볼 수 있었던 近刊「考古」誌를 通혀 알게된 韓國考古學上의 新資料中 于先 紹介할 수 있는 것 한두가지를 整理한 것이다.

一. 高句麗時代의 建物址

1958年 4月, 6月, 7月의 3次에 걸쳐 吉林省博物館은 輯安 東北 約 3 軒되는 地點에서 總 2千平方米나 되는 廣大한 面積을 發掘하여 다음과 같은 高句麗時代의 建物址와 遺物類를 發見하였다.⁽¹⁾ 이 建物址는 元來의 平面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西部一廓만 保存된 것이지만 遺構로 보아 元來는 相當히 큰 建物群이었다고 생각되며 蓮文을 가진 瓦當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과 그것이 壁畫墳이 모여 있는 地帶에 近接하고 있는 點等으로 보아 本來 寺刹이 아니었던가 생각 된다.



第1圖 建物址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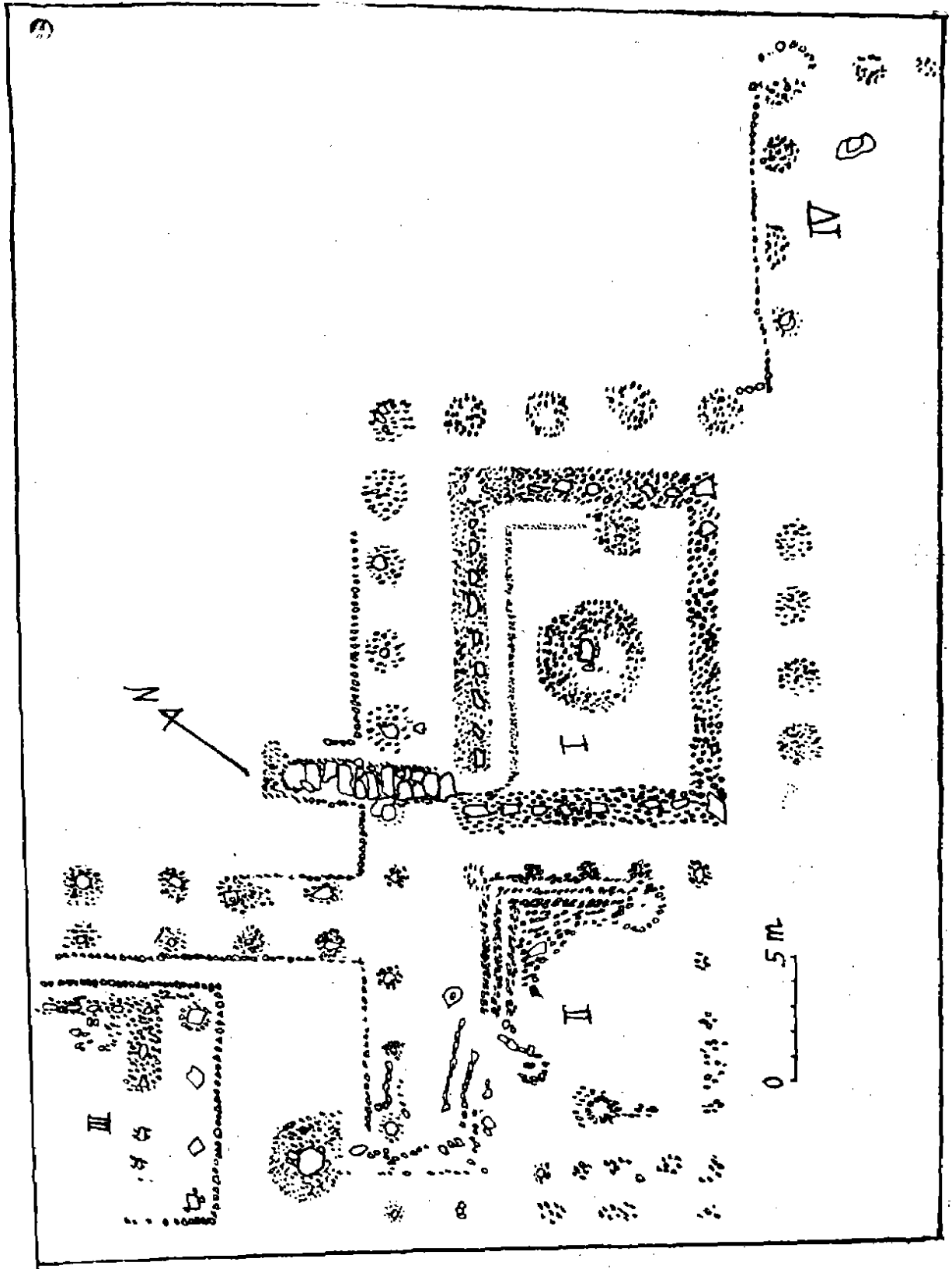
(1) 吉林省博物館「高句麗建築遺址의 清理」考古 1961年 1號.

이 建物址의 位置는 圖 (1)에서 보다 실히 鴨綠江北岸 輯安縣城으로 부터 東北쪽 約 3 軒地點이며 이 地點바로 東쪽에는 高句麗古墳群이 있고 西쪽으로는 約 4 軒距離를 두고 山城子山城이 位置한다. 古墳群은 이 近傍에서 시작해 더 東쪽으로 퍼지고 있으며 有名한 將軍塚이니 太王陵이니 하는 石塚들은 이 地點에서 4 軒 以上の 距離에 있다. 말하자면 이 建物址 자리는 古墳地帶의 西端에 位置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性格上 古墳群에 連結될 것이 아니고 輯安의 郊外로서 都城과 關係를 가지는 建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遺蹟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57年 4월에 吉林博物館에서 이 附近 高句麗壁畫古墳을 調査하다가 地上에서 格文, 繩席文瓦片, 無文筒瓦, 蓮華文, 忍冬文瓦當과 礎石等を 發見한데서 시작된 것이며 그들은 前記한 바와 같이 58년에 3次に 걸쳐 이 一帶를 發掘하였던 것이다.

遺蹟의 地層

遺蹟地의 地層을 보건대 表土層 卽 第一層은 厚 20—25 cm의 腐蝕土層이고 第二層은 灰褐土로서 厚 25—40 cm, 第三層은 灰黑土로서 厚 25—70 cm가 된다. 第一層에서는 極少量의 기와 破片이 있을 뿐이나 第二層에서는 大量의 瓦片이 나왔고 또 礎石은 이 第三層의 下半部에 排列되어 있어 이 第二層과 第三層의 境界線이 大體로 當時의 地表였다고 믿어진다. 第三層에서는 高句麗瓦片은 적으나 陶片과 鐵片이 中間部 以下에서 많이 나왔으며 또 붉은 燒土, 木炭 그리고 불타 남은 殘灰가 亦是 이 層에서 나왔다. 第四層은 厚 15—25 cm의 黃褐土이며 여기에도 殘灰가 섞여 있으나 土質이 단단하며 元來 다져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四個의 層位가 있고 其中 三層에서는 各各 遺物이 나왔으나, 報告者들의 말에 依하면 出土遺物이 形態나 技術面으로 보아 別 差異가 없으므로 모두 「同一文化」라고 斷定하였다. 그러나 高句麗時代것



第2圖 高句麗建物址平面圖

으로서 同一文化가 될 것은 確實하겠지만 層位가 嚴然히 있는 以上嚴格히 分析했더라면 瓦當 같은 것에 있어서 時代的인 差異를 發見했을런지 알수 없는 일이다.

建築址의 構造細部(圖 2)

建物は 東南向을 하고 있으며 南面에 東西 兩室이 있고 다시 兩室사이를 지나 北으로 빠지는 廊道와 그 北端에 또하나의 房이 있다. 至今이 南面 東室을 I, 西室을 II, 北室을 III으로 各各 附號하고 다시 I室 東南側에 連結된 듯한 痕跡만 있는 房을 IV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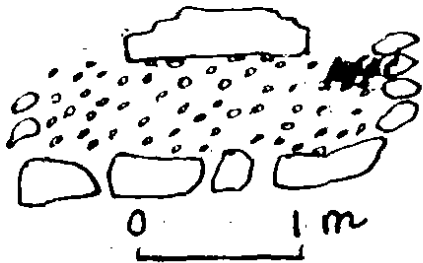
I 室

I室은 四室中 가장 保存狀態가 좋으며 平面形은 長邊(東西) 15 m, 短邊(南北) 11 m의 長方形이다. 基礎部는 자갈들과 黃土를 섞어서 두드린 것이며 이 土礫基部의 넓이는 1.5—2 m고 高는 0.3—0.5 m 程度이다. 말하자면 古代콘크리트基礎 위에 礎石이 놓이는데 그 礎石들은 모두 花岡岩의 板狀石塊를 그대로가 아니면 若干 손질해서 쓴 것이며 이 自然石塊를 基礎部 위에 그대로 놓은 것이다.

四隅의 礎石을 除하고 北壁에는 現在 9개의 礎石이 있고 短壁인 東壁에 6개, 西壁에 7개의 礎石이 남아 있는데 南壁에는 現在 세개만이 間隔을 두고 있기 때문에 出入口는 이 南壁에 한군데 또는 左右로 두군데가 있지 않았는가 推測되고 있다. 한편 房의 中央部에는 亦是 자갈과 黃土를 섞은 基部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長邊 0.8 m, 短邊 0.6 m, 高 1 m의 矩形石을 세우고 있는데 이 石座는 房바닥위로 0.6 m 突出하고 있다. 그런데 이 石座의 上面과 南側面에 끌로 쪼아 만든 長邊 9 cm, 短邊 4 cm, 깊이 0.8 cm의 矩形眼象이 各各 4개씩 새겨 있는데 側面에서는 基部 자갈들을 헤치고 作業한 痕跡이 있어 調査者는 이것은 後人의 加刻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것은 何如든 이 中央 石座의 性格은 어떠

한 것이었는지를 確實히 알 수 없는 形便이다.

한편 東壁中間部에 부쳐서 幅 70 cm, 高 25 cm 의 煙道가 北壁을 따라 7字로 꺾여나가고 있는데 煙道의 内壁은 基部에 자갈돌을 一列깔고 그 위에 깨어진 瓦片을 쌓아 올린 것이며 煙道의 바닥에는 亦是 기왓장을, 그리고 煙道의 上部에는 5—10 cm 두께의 石板으로써 덮고 있다. 이 煙道는 北壁의 西端에서 右折하여 밖으로 通하고 있으며 그대로 約 6 m 餘 北進해서 煙筒과 連結되고 있다. 煙筒은 直徑 1 m 程度로 자갈돌을 깔아 바닥으로 하고 그 위에 煙道壁처럼 瓦片을 쌓아서 올린 것이며 다시 그 外部는 三角形石을 쌓아서 外面을 整頓하고 있다. 그리고 이 煙道라 할까 炕道의 入口(室內) 앞은 다른 곳보다 깊어지고 거기에 재와 燒土가 쌓여 있었으며 여기가 아궁지였다고 믿어진다.



第3圖 礎石斷面圖

밖으로 나가면 壁基礎石에서 約 3.5 m 되는 距離에 자갈돌 礎座를 만들고 그 中心部에 不整形礎石을 配置하였으며(圖 3) 그것이 四周를 돌고 있는 것은 廊道가 있었던 자리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北側廊礎石外部에 돌이 一列로 깔려 있는것은 雨水가 처마밑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用意에서 한 것 같다.

以上이 I室의 殘存構造全部인데 여기서 理解하기 어려운 것은 中央部의 石座이며 調查者들이 I室을 마루가 깔렸던 무슨 廳堂이 아니었던가 推測한 것은 이 石座를 마루를 걸치는 中間支柱라고 생각한데 由因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 이 推測은 正確한 것 같으며 마루를 깔았다고 생각하기 前에는 炕道의 炕口位置나 中央石座를 理解하기 힘들다.

發見遺物

I室發掘中發見된 遺物로는 大型陶器의 殘欠이 煙筒西側에서 나왔으며 室內에서는 쇠로 만든 냄비 破片과 有孔鐵片이 發見되었다. 그리고 瓦當

들이 처마밑 礎石附近에서 나오고 있다. 煙筒옆에서 나왔다는 大型陶器란 或是 煙筒의 上端에 꽃혔던 것의 殘片인지도 알 수 없으나 이것은 勿論 推測에 不過하다.

Ⅱ室

Ⅱ室은 廊下를 사이에 두고 Ⅰ室의 西側에 있으며 그 東北部와 煙筒部를 除外하고는 거의 破壞되어 痕跡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房의 平面은 復原할 수 있으며 廻廊部를 包含한 全體 크기는 東西 14 m, 南北 14 m의 正方形이다. 그러나 房만의 크기는 東西 11 m, 南北 10 m 弱이 된다.

房의 四壁의 基部에는 四隅 以外에 各壁에 3개씩 柱礎가 있는데 礎石은 잘 다듬어진 方體圓面의 花岡石이며 그 밑에는 자갈들을 一乃至二層 깔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Ⅰ에서와 마찬가지로 東壁中間部에 炕口를 둔 煙道가 北壁으로 꺾여나가 다시 右折해서 煙筒으로 나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煙道가 1條가 아니고 두 개가 并列하고 있으나 各煙道의 幅이 30 cm로서 Ⅰ室 것의 거의 折半이기 때문에 全體 煙道의 幅은 增加하지 않고 있다. 또 煙道의 壁은 亦是 瓦片으로 쌓았고 그 길이는 20 cm, 위에는 3—5 cm 두께⁽²⁾의 石板들이 덮혀 있으며 이 煙道上面 卽 房바닥의 높이는 外部地面보다 낮거나 또는 거의 平行하고 있다.

그런데 北壁中間部에서 前記 平行煙道는 一旦 中絶되고 거기에서부터 若干 떠러져 새로 2條의 煙道가 毗連하게 煙筒部로 나가고 있고 이 中絶된 部分부터 室內쪽으로 炕口같은 것과 다시 그 南쪽으로 川石基礎위에 큼직한 礎石이 한개 놓여 있다. 이 炕口같은 것은 報告文에는 灰坑으로 되어있는데 이 部分 一帶는 報告文에는 明瞭하지 않으나 元來의 建물이

(2) 原報告에는 이 石板의 두께가 0.3—0.5 m로 되어 있으나 Ⅰ室에서도 그 두께는 5—10 cm라고 되어 있으며 Ⅱ室에서만 이렇게 두터울 수가 없다. 아마 2—3 cm의 誤記인 듯하다.

破壞되고 二次的인 加築이나 後代의 攪亂(아마 高句麗時代의)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 Ⅱ室도 廻廊에 依해 둘러진 것 같으며 南側은 좀 曖昧하지만 亦是 Ⅰ室과 마찬가지로 廊下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의 發見物로서는 元炕口部分에서 鐵鍋와 陶片이 나왔고 다시 元來의 煙道와 斜行하는 煙道와의 接觸部가까에서 石臼 1, 鐵鏟1, 紡錘車 1, 그리고 四足有孔土器 1 개가 發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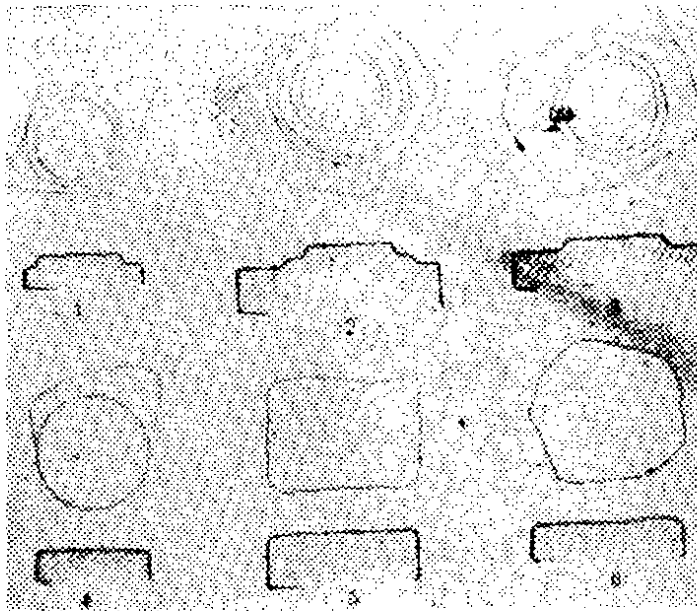
Ⅲ室

Ⅲ室은 Ⅱ室의 北쪽에 있으며 Ⅰ, Ⅱ室과는 廊下로써 連結되고 있다. 現在 完全한 것은 南壁基礎 뿐이며 그 길이는 11m이지만 殘餘壁은 完全치가 않아 크기를 알 수 없다. 또 煙道는 分明치 않으나 東壁中央部에 있는 灰坑은 Ⅰ, Ⅱ室서와 마찬가지로 炕口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南壁基部에는 4개의 川石座礎石이 있고 그 北쪽에 約 2m의 間隔을 두고 Ⅰ室에서 본 바와 같은 川石基部위의 小形礎石들이 있다. 元報告者들은 이러한 構造를 보고 이 Ⅲ室이 南쪽의 長方形室과 그 北쪽의 큰 房의 Ⅱ室로써 形成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誤斷인 것 같고 Ⅰ室과 같은 川石基部를 가진 北쪽것이 정말 室內이고 그 南쪽의 礎石들은 房앞에 달린 廊道의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川石基部의 礎石群을 보건대 中央部가 若干 버려져있는 것 같고 거기가 入口인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바깥 礎石外部를 도는 石列은 Ⅰ室北側에서 본바와 같은 雨水防止用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 房에서의 遺物은 鐵片과 陶片 뿐이었다.

Ⅳ室

Ⅰ室 東南隅에 붙어서 石列과 礎石이 보이는데 亦是 居室의 殘基임은 分明하나 原形을 復原할 수 없을 만치 破壞되어 있다. 그러나 北側에 남아 있는 礎石群은 Ⅳ室北側의 廊道址가 分明하며 따라서 그 南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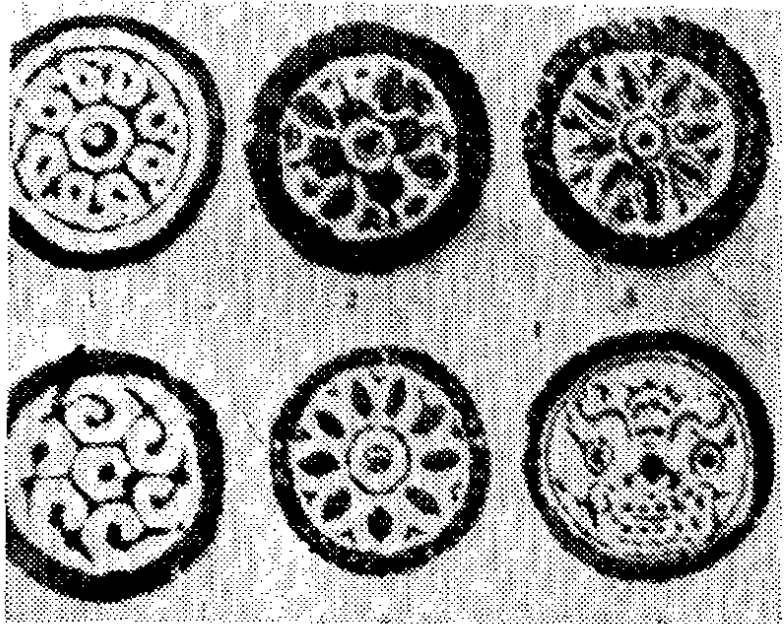


第4圖 磧石各種

와는 두께 1—2 cm, 長 45 cm의 赤色기와며 表面은 全혀 無文이나 地層에 덮히는 內面에는 布文이 나타나 있다.

2. 瓦 當

瓦當에는 鬼面, 忍冬文, 蓮花文, 其他 八瓣文等 各種이 있으나 高句麗瓦 特有의 瓦當面 區劃式은 나오지 않는다. 蓮花文은 單一子房에 九瓣, 그리고 瓦當周緣에 珠文帶가 돌려 있다. 이러한 文樣들은 關野貞氏



第5圖 瓦當各種

의 調査에 依하면 모두 高句麗末期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³⁾ 例를 들

(3) 關野貞 「朝鮮の瓦文樣」 (「朝鮮の建築と藝術」 所收) pp. 431—432 參照.

同論文 插圖 270 에는 通溝東方의 東垢子에서 發見되었다는 똑같은 文樣 瓦當들이 있는데 이 東垢子란 或是 바로 이 建築址遺蹟의 地名인지도 알 수 없다.

에 붙어야 할 房은 完全히 없어진 모양이다.

以上이 이 建物址의 殘構 現狀인데, 이 建物의 性格을 要約해보기에 앞서 여기서의 發見遺物을 于先 一瞥해 볼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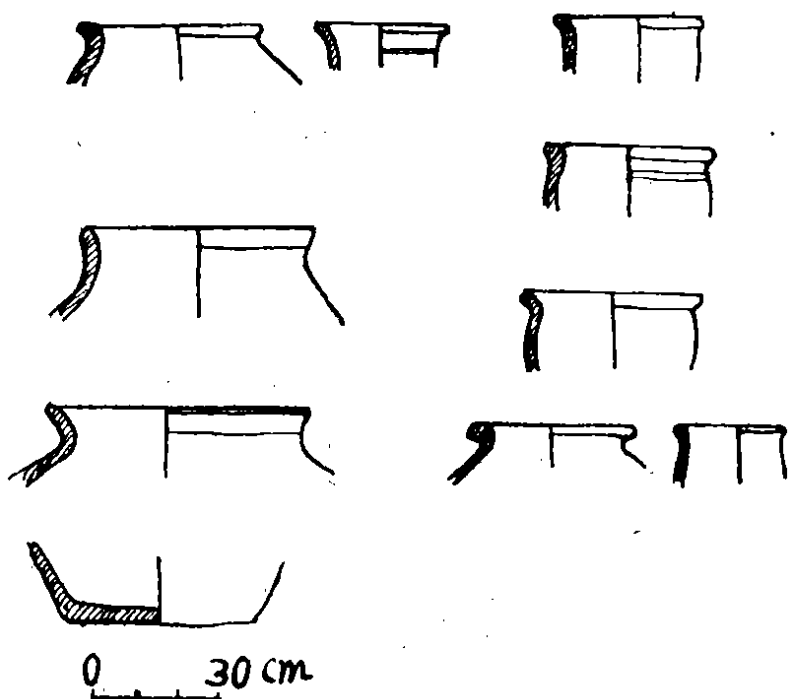
1. 筒 瓦

여기서 나온 筒瓦 卽 숫기

면 將軍塚이나 太王陵에서 發見된 5世紀頃의 기와와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3. 陶器(圖 6)

여기서 採集된 土器는 모두 破碎되어서 實形을 얻을 수 없으나 大體로 다음의 두가지로 大分할 수 있다.



a. 紅褐色土器

百濟土器에서 흔히 보는 따위의 縮約口 平底壺가 壓倒的이며 口部는 若干 外反하고 있다. 이밖에 V形의 細長平底壺도 있다.

b. 灰色土器

이 土器에는 灰青色, 黑灰色 두가지가 있으며 모두 前者보다는 火度가 높고 두께도 0.2—0.3 cm 程度의 硬陶로 되어 있다.

器形은 口緣이 若干 外反하는 廣口壺가 基本的이고 또 따로 紡錘車가 있다.

3. 鐵 器

a. 鐵 斧

兩刃의 鑿斧며 全長 15.5 cm 로 報告되고 있으나 形態는 未詳이다.

b. 鐵 鍬

半圓形의 廣平한 鍬이며 위에 鐵板을 兩쪽에서 맞아서 만든 鑿部가 달려 있고 幅은 7 cm, 두께는 0.2 cm 다. 옆에서 보면 曲面이 아니고 直面인 것이 特色이다.

第6圖 土 器 類

c. 鐵 錘

全長 16 cm 의 L形 鐵器가 鐵錘(?)이라고 疑問符를 달고 報告되어 있으나 形態를 알아볼 수 없다.

d. 鐵 刀子

全長 9 cm, 刃幅 4 cm, 背厚 0.3 cm 의 鐵刀자가 두개 나와 있다.

e. 鐵 鍋

直徑 各各 30, 29 cm 의 냄비가 두개 나왔으며 一器에는 口部아래에 3條의 「流文」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凸條가 돌려 있는 모양이다.

f. 鐵 鏟

3개가 나왔는데 1개는 扁平三角形鏟으로서 全長 7 cm 고 다른 두개는 四稜形이라고 報告되어 있으나 仔細한 것은 알 수 없다.

以上の 것 以外에 金銅簪이 1개 나왔으며 長 13.5 cm 「製作 精緻」라고 報告되어 있으나 圖版도 없고 說明도 없어 仔細한 것을 알 수 없다.

以上이 原報告文을 통한 이 高句麗建物址와 거기서 나온 遺物들의 概要인데 보다싶이 遺物들은 普通日常生活에 關係되는 것들로서 여기 建物들은 或是 佛寺같은 것에 連結되는 一廓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본 이 建物들은 居室의 集合體이며 儀式用建物이 아니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그 時代는 기와를 遙히 高句麗後期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 當時 一般民家에서도 蓮文瓦를 使用했는지 아닌지는 斷言할 수 없으나 蓮文瓦를 썼다고 하면 于先 寺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位置가 古墳地帶에 接近하는 郊外地帶인 點으로 미루어보아 이 建物群은 當時의 큰 佛寺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그러나 或是 離宮이나 別莊 같은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何如든 이 建物들은 普通 民家の 性格을 띤 것이 아니라 寺刹·宮室 같은 最高級建物의 一廓이있으며 이것으로써 當代의 上流社會 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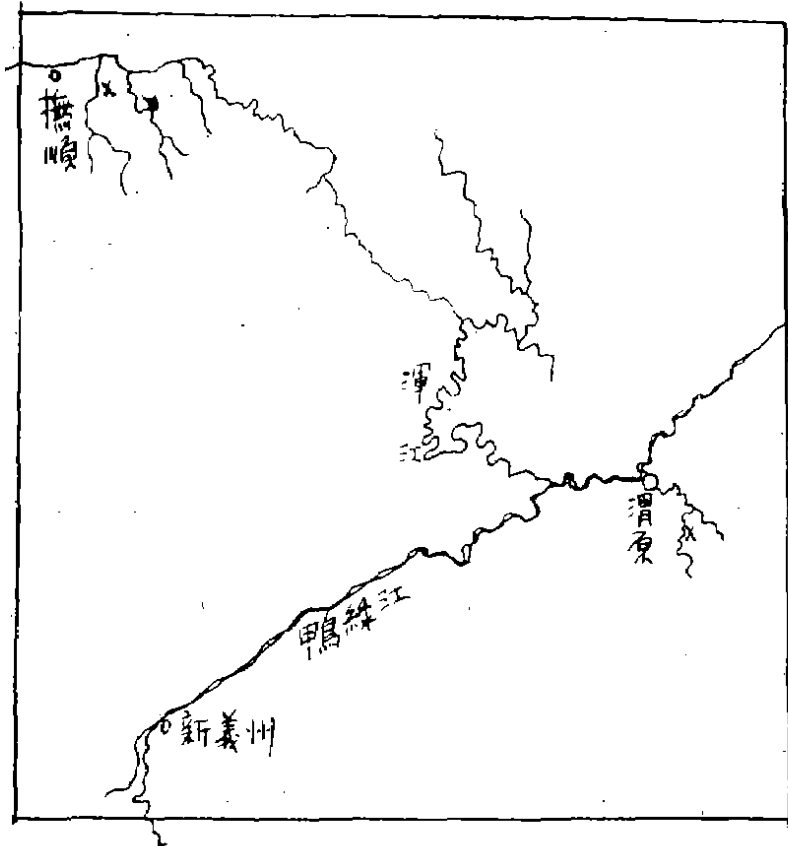
그것도 가장 生活面에 가까운 居室들의 構造를 알 수 있다고 하겠으며 「好治宮室」이라고 中國人에게까지 評判난 高句麗人들의 上流建築이란 이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點에서 이 建物址의 發見은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高句麗後期 一般建築의 거의 唯一한 資料라고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이 建物の 構造를 直觀하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看取할 수 있으며 그것을 列記함으로써 이 稿를 끝맺겠다.

1. 建物は 大體的으로 南面하고 또 東西로 뻗으면서 그것이 階段式으로 前後 깊이를 두며 展開하고
2. 各室은 南面이 넓은 橫長한 長方形이고
3. 入口은 南壁에 열렸고
4. 各室은 들어가서 안쪽인 東北 兩 壁에 부쳐서 後世温嶼의 祖型인 滿洲式炕道를 設置했으며
5. 炕道는 各室의 西北 隅를 뚫고 北走하여 그 끝에다 煙筒을 設置했으며
6. 炕의 火口는 室內에 있었고
7. 各室의 周圍는 相當한 넓이의 廊道로써 둘러 있으며 같은 廊道에 依해 各室이 連結되었다.
8. 地上 建築材料는 木材를 썼을 것이나 壁이나 기둥의 基礎部는 자갈돌을 주로 利用했고
9. 기둥 礎石에는 花岡岩의 不整形石 또는 下方上圓石을 쓰고 있으나 蓮鬩의 使用이 絶無하고
10. 煙道나 굴뚝 下部는 現代처럼 깨어진 瓦片을 쓰고 있다.

二. 遼寧 撫順市出土 鐵製農具

1956年 滿洲의 撫順市郊外蓮花堡에서 住居址와 함께 一群의 鐵製農具가



第 7 圖 撫順市農具出土遺蹟

틀림 없으므로 여기에 紹介해 두고자 한다.

遺 蹟

遺蹟은 깊이 18—30 cm 程度の 表土層下에 있는 0.2—1.2 m 두께의 文化層이며 여기서 石築壁址, 爐址, 灰坑 等 遺構와 함께 多數의 遺物이 發見되었다. 이 遺構들은 틀림 없이 住居址라고 믿어지는데 問題의 農具들은 石築壁址內部的 흙속에서 多數의 土器片과 함께 發見되었으며, 特記할 것은 그 農具들중 一部는 한군데에 차곡 차곡 쌓여있는 狀態로 나와 其外의 것도 호터지기 前에는 本來 그러한 狀態로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되는 點이다.

여기 石築壁址라고 하는 것은 現在 不過 1 m의 길이 밖에 안되는 壁의 基礎部에 不過하지만 그 附近에 호터져 있는 石塊群으로 미루어 보

發見되었다.⁽⁴⁾ (圖 7) 이 發見은 滿洲內의 일 이기는 하나 그것이 地理的으로 鴨綠江에서 過히 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農具들이 過去 渭原에서 나온 有名한 鐵製農具⁽⁵⁾들과 꼭 같은 形態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큰 興味를 끄는 타이며 渭原 農具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4) 王增新「遼寧撫順市 蓮花堡遺址發掘簡報」考古 1964年 6號 pp. 286—293.

(5) 朝鮮古文化綜鑑 第二卷 圖版 1—3.

면 元來는 弧形을 이룬 圓形家屋의 壁의 基部였다고 생각된다. 이 石築은 自然石塊와 川石을 섞어서 幅 25 cm의 넓이로 얇게 쌓은 것이며 그 上部와 附近에 硤 단단한 泥塊들이 있는 點으로 미루어 이 石基 上部에는 土壁이 있었다고 推測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報告者들도 指摘하고 있다 싶이 이것은 圓形土壁집의 基部라고 생각되며 戰國末, 前漢初期의 이 地方 民家の 모습을 推測케 해주는 貴重한 遺構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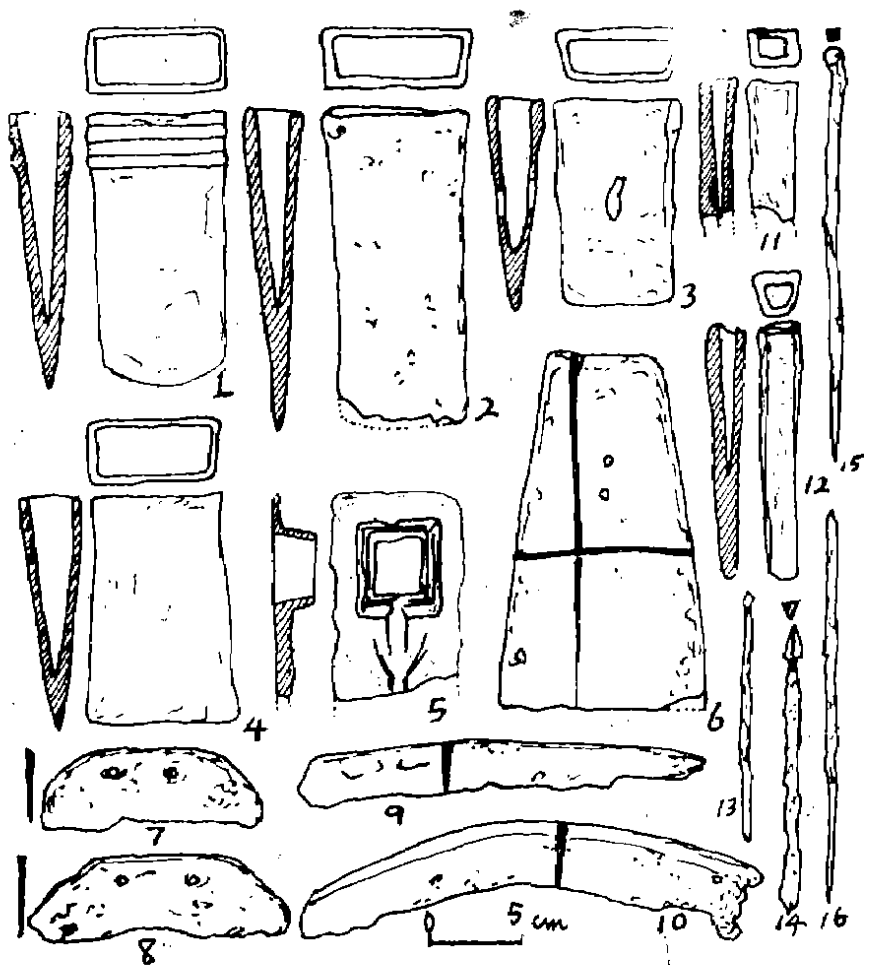
遺 物

이 遺蹟地에서 發見된 遺物에는 鐵器, 石器, 銅器 그리고 土器等 各色各樣이며 따로 유리·半兩錢도 採集되었다.

1. 鐵器類(圖 8)

鋤 斧

原報告文에서는 形態의 些少한 差異에 依해 四種으로 나누고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斧頭에는 中空으로 된 長方形鑿이 있고 刃部는 兩刃으로 된 形態로서 特히 그 第Ⅱ式은 斧身中央幅이 若干 縮約된 모습이 우리 涓原것과 조금 差가 없다.



第8圖 鐵製 農具 및 工具類

1—4. 鋤斧, 5. 鍬, 6. 鋤, 7—8. 半月刀, 9—10. 鎌, 11—12. 鑿, 13—14. 鐵.

이 撫順遺蹟에서는 이러한 鐵斧가 합 60개가 나왔으며 完形만도 26개나 된다고 한다. 또 그들의 크기도 全長 14—17 cm 雙幅 6 cm 前後로서 渭原것과 共通되고 있다. 다만 古文化綜鑑의 說明文에서는 渭原것은 鍛造라고 되어있는데 對해 撫順報告書에서는 鑄造한 것이라고 指摘되고 있어 不一致인데 이것은 亦是 鑄造로 보는 것이 옳을것 같다.

鎌

두개가 나왔으며 하나는 刀子形으로 直背直뿔이고 全長 21.4 cm, 幅 2.7 cm, 背厚 0.35 cm, 또 하나는 曲背曲뿔으로 全長 24.2 cm, 幅 3.7 cm, 背厚 0.5 cm 다. 이 後者は 다시 基部에 작은 貫孔이 한개 있으며 全形이 우리 渭原出土分과 조금도 다름 없다.

半月形刀

中國語로 招刀라고 불리우는 것이며 曲背直뿔, 雙孔形式으로서 이것도 渭原出土分과 酷似하다. 至今 3개가 있는데 長 13 cm, 幅 4 cm 程度이다.

鋤

두개가 있으며 長梯形身에 中央部 若干 上部에 雙孔이 있다. 이것도 우리 渭原것과 酷似하며 高 19 cm.

鍬

이것은 長方形身에 長方形 뿔이 뿔린 것으로 現代의 것과 비슷하다. 至今 上部 一部가 남아 있을 뿐인데 뿔이 안쪽으로 若干 突出하고 있는 點等 우리 渭原것과 꼭 같은 形式의 것이었음이 分明하다.

鏃

不完品 1, 完品 1의 두개가 있는데 完品은 全長 13.4 cm이며 鏃身上部가 方뿔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渭原遺物속에는 없는 種類이다.

三角鏃

긴 莖에 三角錐鏃身이 달린 것이며 渭原遺物속에도 一例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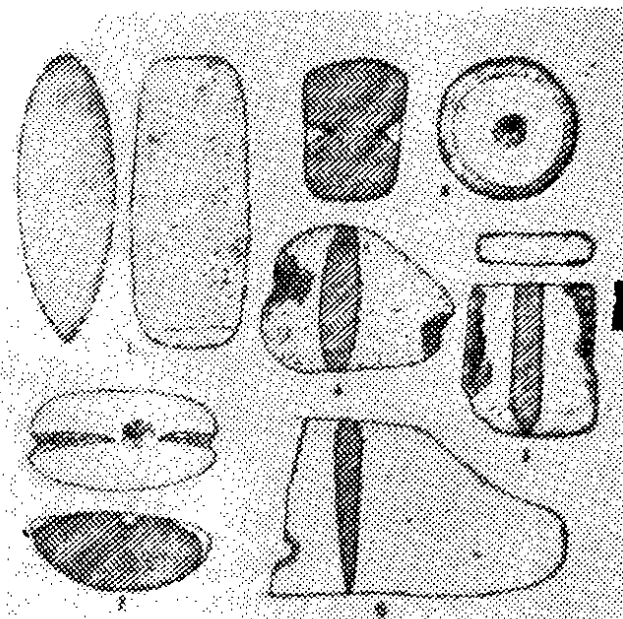
錘

두개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鑄造品과는 달리 이것은 鍛造品이다. 全長 20cm 程度の 長大한 것이다.

漁 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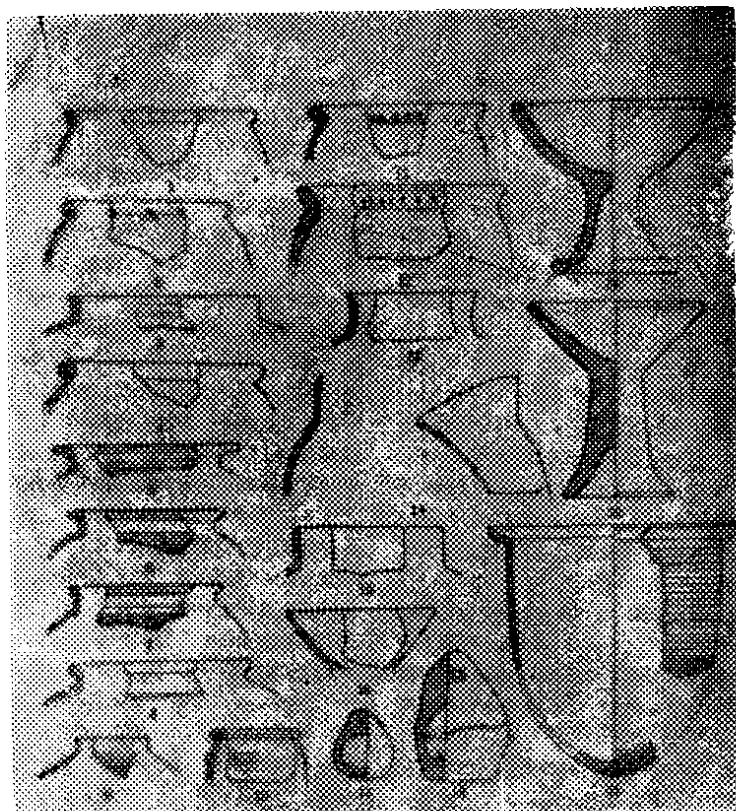
普通보는 따위의 逆刺가 달린 形態이며 길이 2 cm 程度이다.

以上이 鐵製品의 全部인데 이 밖의 遺物로서는 石器에 網錘, 半



第9圖 石器類

月形石刀, 石斧, 扁平石斧, 紡錘(圖 9), 銅器에 三角翼 鏃, 劍身과 劍把사이애 끼우는 鐔具, 그리고 土器에 網錘, 紡錘를 爲始해서 無頸壺, 短頸壺, 高杯, 圓底 廣口壺, 土鈴(圖 10) 또 따로 碧色유리 球玉 2개, 유리 耳璫 1개와 文化層上部에서 나왔다는 前漢 半兩 錢 1개가 있다.



第10圖 土器類

를 써서 比較的 단단하게 구은 것이며 色은 灰·褐·紅 3種이지만 灰色가 가장 많다. 그런데 表面이 無文인 것도 있으나 繩文, 點文等을 打捺한 것도 있고 또 口緣部를 밖으로 말아서 附着시키고 그 周圍에 卍點을

여기 土器들은 砂粒, 雲母, 滑石粒等을 섞은 胎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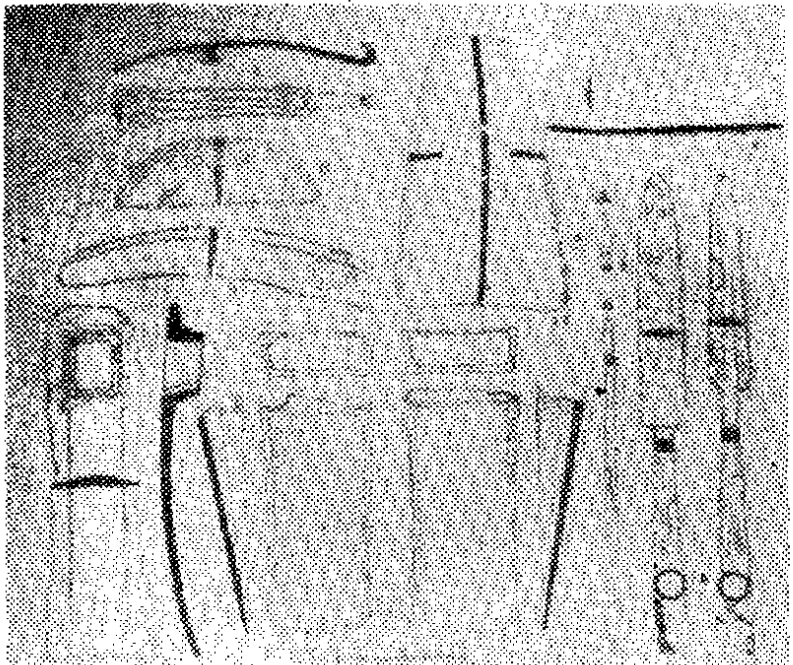
돌린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廣州可樂里土器⁽⁶⁾나 慶州土器⁽⁷⁾ 따위에서 보는 비슷한 土器形式을 聯想시킨다.

渭原遺物과의 比較

渭原에서 나왔다는 鐵製農具類는 1927年 4月 滿浦鎮보다 더 下流에 있는 鳴綠江邊인 平北渭原郡崇正面龍淵洞에서 道路工事中 明刀錢多數가 發見되었고 이어서 9月 달에 同一地點에서 鐵具들이 나온 것이었다. 이 遺蹟에 對해서는 朝鮮古文化綜鑑 第1冊의 解說文에 依하면 本來 直徑 3.6m 程度의 圓形積石塚이었다고 생각되며 明刀錢은 數個씩을 새끼로 묶어서 數段으로 쌓았고 그것을 東西로 길게 並列해 있었다 하고 其外의 鐵器類는 그 南쪽에 約 60cm의 距離를 두고 亦是 整列되어 있었다 고 한다.

여기서 發見된 遺物을 列記하면

明刀錢 完形品 51枚, 刃部 239枚, 把部 255枚, 中部 250枚, 銅製三角 錐鏃 1, 銅製帶鉤 1, 鐵斧 2, 鐵鋤 2, 鐵鋤 1, 鐵鎌 1, 半月形鐵 刀 1, 鐵尖器 1, 鐵鏃 1, 鐵鉞 2, 動物齒 1의 여러가지다(圖 11).



第 11 圖 渭原出土 銅鐵器類

앞에서 말한 바와 같 이 渭原鐵器中에는 明刀 錢, 銅帶鉤, 鐵鉞, 動物 齒 같은 撫順것에는 없

(6) 金延鶴「廣州可樂里先史住居址發掘報告」古文化 第二輯, pp. 11—25

(7) 慶州在住尹京烈氏의 蒐集品속에 이러한 無文土器破片이 있다.

는 物件도 들어 있으나 其外의 것들은 彼此 恰似하며 同一鑄范은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同一地域에서 製作된 것임은 疑心할 바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본 바와 같은 明刀錢은 戰國時代의 刀幣로서 燕의 平明邑 또는 趙의 新明邑에서의 鑄造品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分明히 中國製品이다. 또 銅製帶鉤도 戰國時代로 올라가는 中國製品이며 鐵斧, 鐵鍬도 遼東 半島의 貔子窩⁽⁸⁾에서, 半月形鐵刀도 같은 地域의 旅順老鐵山⁽⁹⁾에서 各各 發見되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環境下에서 볼 때 우리 涇原의 一括遺物이 韓國內 製品이라고 보기는 到底히 힘들 것이며 이것들은 亦是 撫順것과 마찬가지로 어디 遼東, 熱河地方에서 만들어져 그것이 東傳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境遇 撫順에서의 發見狀態가 單純한 聚落地가 아니고 石礎위에 土壁을 쌓은 圓形家屋內部에 人工的으로 安置되어 있었던 것을 示唆하고 있어 그것이 무슨 貴重品을 格納하는 倉庫와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 바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涇原에서의 境遇는 圓形으로 石列이 있었다하여 積石塚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도 或是 土壁을 가졌던 圓形家屋 卽 倉庫의 자리였는지도 알수 없다. 또 平北寧邊郡都館洞과 滿洲 大石橋盤龍山에서 發見된 明刀錢들도 「岩石片으로서 家屋의 礎石처럼 쌓고 그 돌각담속에서 무더기로 나왔다」고 報告되어 있어⁽¹⁰⁾ 亦是 倉庫址 같은 性格의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는 앞으로 더 確實한 遺蹟이 發見됨으로써 解明될 性質의 것이기는 하지만 撫順의 例로 보아 우선 그러한 可能性을 示唆해 두는 바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鐵器文化의 流入經路가 海路를 거치지 않고 도리

(8) 東方考古學叢刊 第一冊 貔子窩 1929年.

(9)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p. 16.

(10) 藤田亮策「朝鮮發見の明刀殘と其遺蹟」(「朝鮮考古學研究」所收) p. 242, p. 265.

어 鴨綠江中流로 나오는 山岳地帶를 通해 淸川江이나 大同江의 上流地帶로 들어온 것임은 이미 先學들이 指摘한 바와 같지만⁽¹¹⁾ 解放後에도 明刀錢遺蹟은 그러한 地域에서 더 發見되어⁽¹²⁾ 이제 그러한 古代鐵器文化通路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 意味에서 이 撫順市에서의 鐵器農具類의 一括發見은 그 土器의 性格과 함께 滿洲內에서의 中國鐵器文化東流의 한 伸繼點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資料를 提供해 준 셈이다. 더구나 여기서 半兩錢과 유리 耳璫 같은 것이 나와 그 時期를 漢初까지 明確하게 끌어 내린것 亦是 하나의 새로운 知識이라고 하겠다.

(11) 同書 pp. 289—290.

(12) 例를 들면 1952年 江界吉多洞麻仙站에서 明刀錢 千二百枚, 1955年 平北前川郡吉祥里에서 二百枚, 亦是 같은 해에 平北鐵山郡檜島, 同登串에서 若干枚가 發見되고 있다.

李進熙「戰後の朝鮮考古學の發展」考古學雜誌 45—1, pp. 46—64.